

보도시점 2023. 6. 30.(금) 회의 직후 배포 2023. 6. 29.(목)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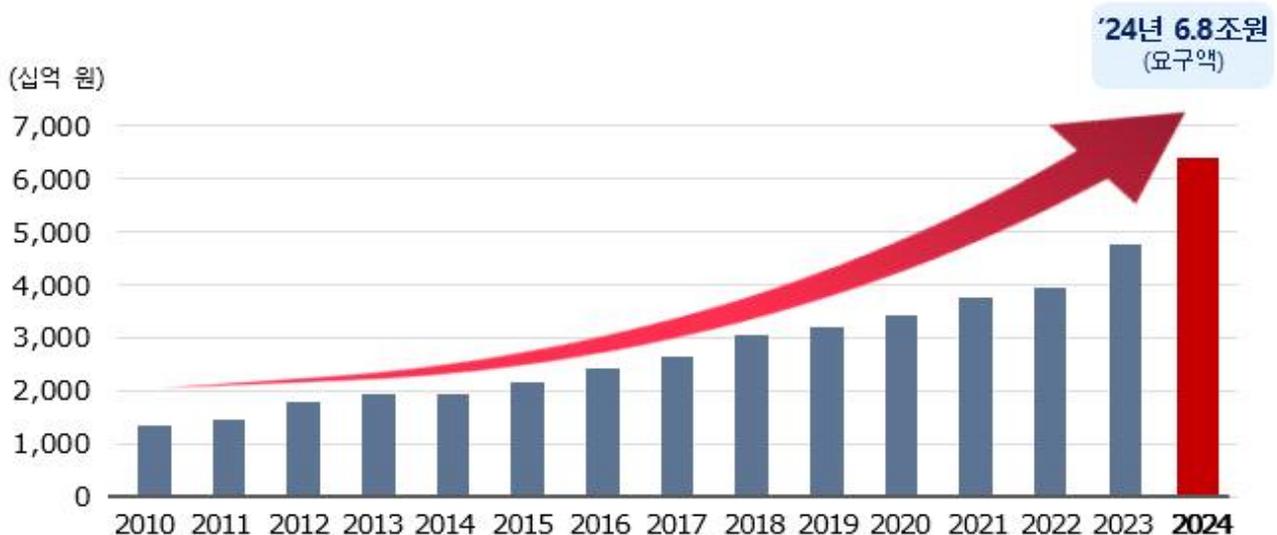
개발협력 7조원 시대 코 앞에 정부, 내년 ODA 규모 6조 8,421억원 요구액 의결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위해 사상 최고액 기여키로

- '24년 ODA 요구액은 올해 대비 2조 650억원 증가(43.2% ↑)

- 정부는 6월 30일(금)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사상 최대 규모인 6조 8,421억원, 1,978개 사업에 대해 내년도 ODA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 제4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3.6.30. (금) 10:00 /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이하 관계부처장, 민간위원 등 총 26인
- 회의안건 :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 4건



< '10년~'24년 우리나라 ODA 규모 >

- 앞으로 사업계획이 기재부 심의와 국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19년에 제시했던 “'30년까지 6.4조원” 공여 목표를 6년 앞당겨 조기 달성하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당시 국제사회에 했던 규모 증대 약속('15년까지 GNI 대비 0.25%)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 이는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경제규모에 걸맞은 선진국형 ODA”를 추진 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고자 하는 윤석열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 우리나라는 '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꾸준히 ODA를 확대 해 왔으나, 절대규모는 30여개 회원국 중 중위권(16위, '22년) 수준*으로 국제사회에서는 경제규모에 맞게 ODA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 * 일본의 ODA는 우리의 6.3배(일본 GDP는 우리의 3.2배),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는 3배, 이탈리아는 2배 수준('22년 OECD DAC 통계)



< 국가별 ODA 규모 비교 >

- 이에따라 내년도 ODA를 전년대비 2조 650억원을 증액(43.2↑%)하여, 글로벌 현안대응 강화 및 재난·분쟁 등에 대한 인도적지원(7,581억원↑), 대형 인프라(유상) 사업 추진(5,691억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기구(UN 등) 기여(1,197억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는 규모 확대와 함께 ODA 지원 효과를 높이고 국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ODA 운영 방안 등을 ‘종합시행계획’에 구체화했다.
- 먼저 인도적 지원 분야 예산을 3배로 증액*하여 식량·보건 등 우리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현안해결을 주도하고, 분쟁과 재난·재해 등 긴급한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한 국제공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 인도적 지원 규모 : ('23년) 4,036억원 → ('24년, 요구액기준) 11,617억원(전년대비 188%↑)

< 글로벌 현안해결 국제공조 >

- (식량) WFP, 쌀 지원 2배 확대(5→10만톤), 아프리카 K-ricebelt(7개국) 구축
- (보건) ACT-A 3억불('23-'25), 글로벌펀드 1억불('23-'25) 등 기여 확대 및 보건격차 해소 지원
- (기후) G7 기후클럽 가입 등 국제규범 논의 동참, 혁신적 녹색기술 공유

- 둘째 수원국이 요구하는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대형·패키지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수원국의 실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 대형 패키지 사업 사례 >

- (사례1) 인도네시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EDCF, '23~'26) 패키지
(EDCF, 2,129억원) 데이터센터 구축 + (KOICA) 운영지원, 인력양성 + (행안부)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운영 등
→ 정부 정보자원 통합 관리로 행정민원처리 간소화, 우리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 기반 마련
- (사례2) 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EDCF+EDPF, '23~'27) 패키지
(EDCF, 1,3088원) 철도 전자시스템 + (EDCF+EDPF, 3,348억원) 철도 현대화+ (KOICA) 인력양성 등
→ 노후화된 기간교통망 현대화로 이집트 경제발전, 주민 이동편의 향상 기여, 국내 철도관련 기업 진출

- 셋째 인도-태평양 전략, 부산이니셔티브 등 대외전략과 연계를 강화하여 글로벌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상생의 국익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대외 전략과의 연계 >

- (인도-태평양 전략) 아세안 중심 지원에서 중남미·태도국으로 협력 확대
* ▲(중남미) 지역개발·보건·공공행정분야 ▲(태도국)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에너지 전환 지원
- (부산 이니셔티브) 개도국 수요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
*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보건·의료, 식량 안보, 교육 등 5대 분야

- 넷째 ODA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청년의 해외 일·경험 기회 확대로 미래세대의 지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원국의 실질적 발전 지원을 통해 수원국 국민들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 아울러 ODA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국무조정실에 'ODA 집행 관리 TF'를 신설하여 사업 집행 상황을 집중점검하는 등 사업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 오늘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 상황에서도 ODA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린 만큼,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ODA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하였다.

- 한편, 동 위원회에서 제3기 중점협력대상국(27개국) 중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거나 신규 국가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등 수원환경이 변화한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볼리비아, 페루 등 4개 국가에 대한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하였다.
- 또한 ODA 분야 민간의 개발건설팅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과 재외공관이 187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붙임】 1. 제4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2. '24년 국제개발협력(ODA) 종합시행계획 개요(요구액 기준)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민성 (044-200-2148)
		담당자	사무관	양희경 (044-200-2162)
담당 부서 <안건 1>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민성 (044-200-2148)
		담당자	서기관	김형관 (044-200-2161)
	국무조정실 사업연계조정과	책임자	과 장	조민호 (044-200-2164)
		담당자	사무관	범진이 (044-200-2166)
담당 부서 <안건 2>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전략과	책임자	과 장	배성현 (044-200-2157)
		담당자	사무관	선우세원 (044-200-2207)
담당 부서 <안건 3>	국무조정실 성과지원과	책임자	과 장	맹준호 (044-200-2195)
		담당자	사무관	송재민 (044-200-2196)
담당 부서 <안건 4>>	외교부 개발협력과	책임자	과 장	박지숙 (02-2100-8137)
		담당자	사무관	최재림 (02-2100-8354)



1.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 정부는 '24년 종합시행계획을 통해, 내년도를 「ODA 선진국 도약 원년」으로 삼고 국제사회 가치 기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내년도 ODA 사업요구액 규모를 올해보다 2조원(43.2%) 증가한 6조 8,421 억원으로 정하고, 47개 기관(12개 지자체 포함)에서 총1,978개의 사업('23년 1,840개)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 구체적으로 양자사업중 지역별로는 아시아(31.5%), 아프리카(17.7%)를, 분야별로는 인도적지원(20.6%), 교통(14.3%), 보건(8.0%), 공공행정(8.0%)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변화 등으로 급증하는 취약국가의 재난·재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도적 가치 실현에 우선적 방점을 두고 예산을 크게 증액*하기로 했다.
 - * 인도적 지원 규모 : ('23년) 4,036억원 → ('24년, 요구액기준) 11,617억원(전년대비 188%↑)
 - 또한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WFP 공여(연 10만톤),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ACT-A 기여(3억 달러, '23-'25년), 분쟁국가 회복 지원(우크라이나 등) 등 국제공조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니라 ODA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 맞춤형 지원, 사업의 규모화, ODA 관리체계 정비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 인도-태평양 전략, 부산이니셔티브 등 주요 대외전략을 고려해 세부 ODA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GCF 등 국제기구와 협조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국익에도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 현지에 있는 공관 및 시행기관 사무소 등의 역량강화를 통해 수원국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고, 정부·시민사회·기업이 현장에서 'ODA 원팀'으로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 우리 강점분야인 스마트팜·스마트시티·디지털 정부 등 혁신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면서 민간재원을 활용한 대형 인프라 사업을 확대해 수원국의 최우선 요구(needs)를 충족시키고 지원 성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 「성과관리 강화방안」(’23.下) 등을 통해 사업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고, 「정보공개 지침」(’24.上)을 마련하여 ODA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 4개 중점협력대상국 국가협력전략 수정

□ 정부는 제3기 중점협력대상국(27개국) 중 최근 정치상황 변동 및 신규 국가개발계획 수립 등 수원환경이 변화한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볼리비아, 페루 등 4개 국가에 대한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하였다.

*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CPS) : 개별 중점협력국에 대하여 중점 협력분야, 분야별 협력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ODA 지원 전략

- 이번 수정안은 수원국 협력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수원국 심층 분석 및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하였으며,
- 우리 강점과 수원국 협력수요가 부합하는 디지털·기후·보건·식량·교육 등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점협력분야* 등을 수정하였다.

* 중점협력국별 양자 ODA 예산 중 70% 이상을 동 분야에 집중 지원할 예정

< 국가별 중점협력분야 >

국가명	중점협력분야	
	수정 前	수정 後
우즈베키스탄	①물관리·보건위생 ②교육 ③공공행정·ICT ④지역개발	①보건의료 ②교육 ③공공행정·ICT ④지역개발
필리핀	①교통 ②재해예방 ③물관리·보건위생 ④지역개발	①교통 ②물관리·보건위생 ③기후변화·환경 ④ICT ⑤지역개발(식량안보)
볼리비아	①보건위생 ②지역개발 ③교통 ④에너지	①보건위생 ②지역개발 ③교통 ④에너지
페루	①공공행정·ICT ②환경보호 ③보건위생 ④교통	①공공행정·ICT ②환경보호 ③보건위생 ④교통

- 앞으로 4개 국가의 국가협력전략을 토대로 중점협력분야 중심의 지원 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며, 나머지 중점협력국의 수원 환경변화에도 적시 대응하여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3. 민간의 개발컨설팅 활성화 방안

□ 정부는 ODA 규모 확대에 걸맞은 품질 제고를 위해 ODA 사업 시행 단계별로 개발컨설팅 서비스* 활용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 ①프로젝트 컨설팅과 ②정책자문 컨설팅으로 구성 → ①ODA 프로젝트에 단계별 컨설팅 서비스 제공 가능, ②정책자문의 경우 개발경험 공유, 공통컨설팅 등 가능

○ △ODA 사업 전 분야에 개발컨설팅 활용, △전문가 단가현실화 및 행정부담 완화, △초급전문가 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해 아직 초기단계인 국내 개발 컨설팅 시장* 확대 및 민간의 참여여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약 3천억원 규모 → ①프로젝트 컨설팅(2,132억)과 ②정책자문 컨설팅(854억)으로 구성

4. '22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

□ `22년 56개 재외공관이 187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설문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모니터링 결과, 작년에 비해 정상이행 비율은 83%로 증가하였고, 후속 관리 필요 비중(17%)은 감소하였다.

□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업별 후속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 나가는 동시에

○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심의에 환류하여 더욱 투명한 ODA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총 규모)** '24년 ODA 요구액 규모는 약 6조 8,421억원으로, 총 47개 기관 1,978개 사업 추진
 - **(ODA 규모)** '23년 4조 7,771억원 대비 2조 650억원 증가(43.2% ↑)
 - **(참여기관)** '23년 45개 기관 대비 2개 기관* 증가(4.4% ↑)
 - * 국세청, 전라북도
 - **(사업 수)** '23년 1,840개 대비 138개 사업 증가(7.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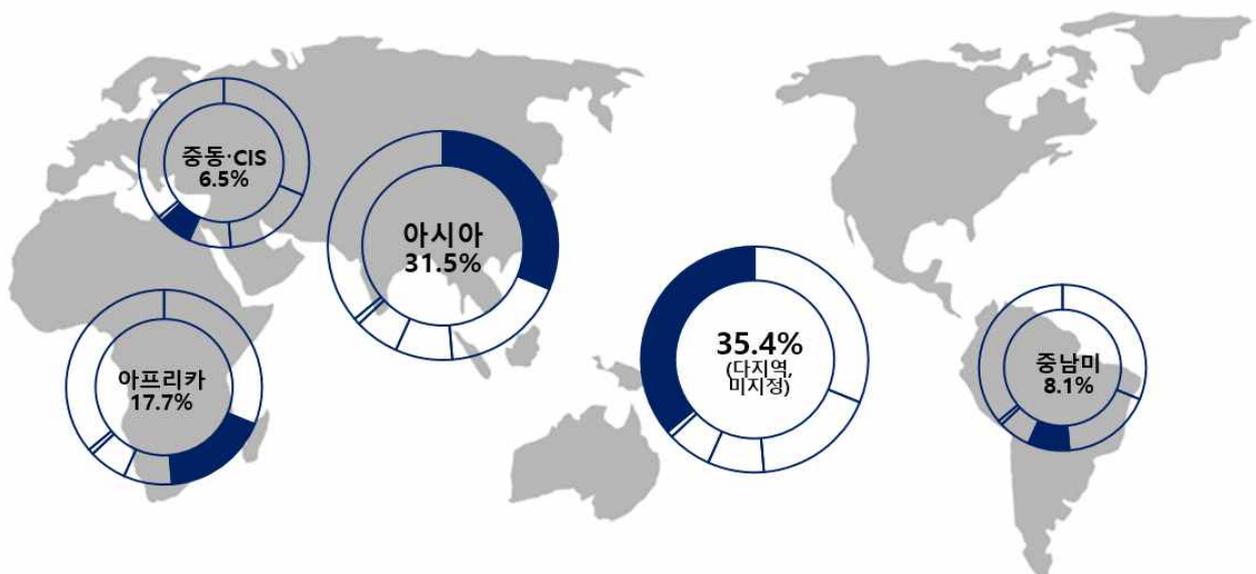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요구액)
총ODA(십억원)	3,048.2	3,200.3	3,427.0	3,754.3	3,938.3	4,777.1	6,842.1
양자간원조 비중(%)	2,387.7 (78.3)	2,493.8 (77.9)	2,775.0 (81.0)	2,926.1 (77.9)	3,115.7 (79.1)	3,673.9 (76.9)	5,651.1 (82.6)
유상원조 비중(%)	1,058.1 (44.3)	1,141.2 (45.8)	1,184.9 (42.7)	1,258.2 (43.0)	1,230.5 (39.5)	1,503.0 (40.9)	2,072.1 (36.7)
무상원조 비중(%)	1,329.6 (55.7)	1,352.6 (54.2)	1,590.1 (57.3)	1,667.9 (57.0)	1,885.2 (60.5)	2,170.9 (59.1)	3,579.0 (63.3)
다자간원조 비중(%)	660.5 (21.7)	706.5 (22.1)	651.9 (19.0)	828.2 (22.1)	822.6 (20.9)	1,103.2 (23.1)	1,191.0 (17.4)



□ 주요 특징

- (유형별) 총 ODA 중 양자협력 對 다자협력간 비율은 약 83:17, 유상협력 對 무상협력간 비율은 37:63 수준
 - '23년 양·다자 비율(77:23) 대비 양자협력 비율 5.7%p 증가
 - * '23년 요구액 기준 시행계획상 양·다자 비율(81:19) 비교시 양자협력 비율 1.1%p 증가
 - '23년 유·무상 비율(41:59) 대비 무상협력 비율 4.2%p 증가
 - * '23년 요구액 기준 시행계획상 유·무상 비율(37:63) 비교시 유상협력 비율 0.2%p 증가
- (지역별) 아시아, 아프리카 중심으로 지원
 - '23년 대비 아시아(38.5→31.5%), 아프리카(19.4→17.7%) 지역 비중은 감소하고, 중남미(7.5→8.1%), 중동·CIS(4.1→6.5%), 기타(29.8→35.4%) 비중 증가
 - * '23년 비중(%) : 아시아(38.5), 아프리카(19.4), 중남미(7.5), 중동·CIS(4.1), 오세아니아(0.7) 순

구 분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CIS	오세아니아	기타
규모(억원)	유상	10,784	4,723	2,497	1,124	25	1,568
	무상	6,996	5,296	2,068	2,544	463	18,424
	총계	17,780	10,019	4,565	3,668	488	19,992
비중(%)	유상	52.0	22.8	12.1	5.4	0.1	7.6
	무상	19.5	14.8	5.8	7.1	1.3	51.5
	총계	31.5	17.7	8.1	6.5	0.9	35.4



* 중점협력국 27개국 대상 약 79.7%(유상 85.4%, 무상 71.1%) 지원(다국가 사업 제외)

- **(분야별) 인도적 지원(20.6%), 교통(14.3%), 보건(8.0%)** 순이며, 인도적 지원(9.6%p) 분야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23년 비중(%) : 교통(13.1), 보건(12.9), 인도적 지원(11.0), 교육(8.8%), 공공행정(8.1)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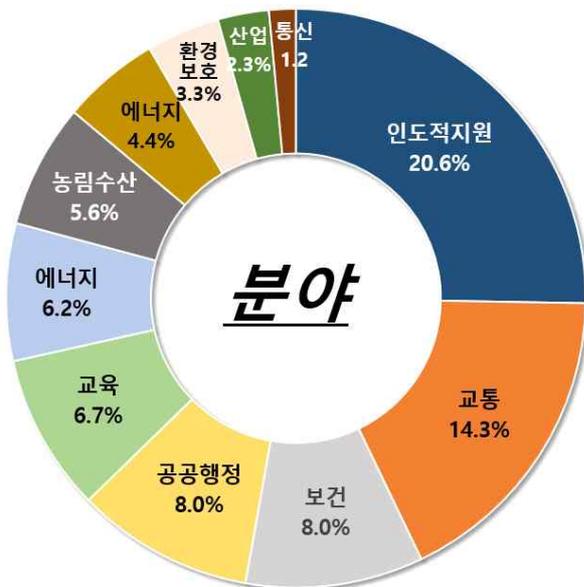
구분	구분	인도적 지원	교통	보건	공공행정	교육	에너지	농림수산	수자원 및우생	환경보호	산업	통신	기타
규모 (억원)	유상	-	7,357	2,378	2,313	327	2,470	471	1,790	961	-	512	2,140
	무상	11,617	724	2,157	2,216	3,485	1,045	2,676	690	907	1,321	142	8,811
	총계	11,617	8,081	4,536	4,529	3,812	3,515	3,147	2,481	1,868	1,321	654	10,951
비중 (%)	유상	0.0	35.5	11.5	11.2	1.6	11.9	2.3	8.6	4.6	0.0	2.5	10.3
	무상	32.5	2.0	6.0	6.2	9.7	2.9	7.5	1.9	2.5	3.7	0.4	24.6
	총계	20.6	14.3	8.0	8.0	6.7	6.2	5.6	4.4	3.3	2.3	1.2	19.4

- **(형태별) 프로젝트(60.8%)** 중심으로 프로그램(25.1%), 연수사업(3.3%)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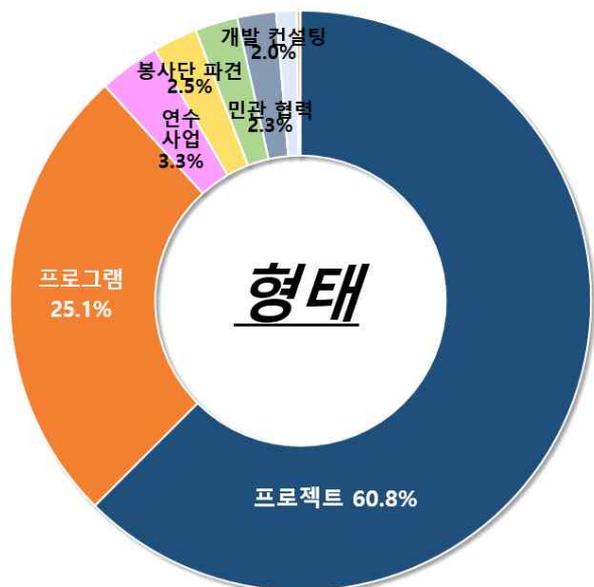
* '23년 비중(%) : 프로젝트(67.2), 프로그램(14.4), 연수사업(4.3), 봉사단파견(2.9), 개발컨설팅(2.3) 순

구분	구분	프로젝트	프로그램	연수사업 (장학지원 포함)	봉사단 파견	민관협력	개발 컨설팅	행정비용	기타 기술협력	기타
규모 (억원)	유상	18,645	2,076	-	-	-	-	-	-	-
	무상	15,701	12,100	1,873	1,385	1,276	1,141	604	124	1,587
	총계	34,345	14,176	1,873	1,385	1,276	1,141	604	124	1,587
비중 (%)	유상	90.0	10.0	-	-	-	-	-	-	0.0
	무상	43.9	33.8	5.2	3.9	3.6	3.2	1.7	0.3	4.4
	총계	60.8	25.1	3.3	2.5	2.3	2.0	1.1	0.2	2.8

< 분야별 비중(기타 제외) >



< 형태별 비중(기타 제외) >



- **(신규/계속)** '23년에 비해 신규사업의 비중(11.3→14.8%)과 신규사업수(518→588개)는 증가하고, 신규사업 규모(4,762→9,681억원)도 증가

구분	구분	신규	계속	합계	구분	구분	신규	계속	합계
규모 (억원)	유상+MDB	6,838	18,190	25,028	사업 수 (건)	유상+MDB	60	218	278
	무상+UN	2,843	37,688	40,531		무상+UN	528	1,172	1,700
	총계	9,681	55,878	65,559		총계	588	1,390	1,978
비중 (%)	유상+MDB	27.3	72.7	100	비중 (%)	유상+MDB	21.6	78.4	100
	무상+UN	7.0	93.0	100		무상+UN	31.1	68.9	100
	총계	14.8	85.2	100		총계	29.7	70.3	100

□ **사업 조정(연계 및 중복방지)**

- **(총괄) 총 146건 295개 사업 조정(연계 및 중복방지)을 통한 ODA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 연계사업의 이행력·실행력 확보 등 질적 내실화를 위해 기관간 소통·협력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기관별 연계사업 추진계획 수립
- **(유·무상 연계)** 「N-2년 예비검토제」 및 「범부처 EDCF 사업심의 위원회」 등을 통한 연계사업 적극 발굴(40건 81개 사업)
- **(무상간 연계)** 재외공관 및 시행기관을 통한 신규 연계가능 사업 발굴 및 검토, 주관기관-시행기관 1:1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무상 원조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연계·조정 추진(92건 200개 사업)
- **(무상간 중복 방지)** 중복 가능 사업에 대한 조정 추진(14건 14개 사업)